

## [ 종합·해설 ]

노대통령 '여·야·정 정치협상' 제안 왜?

## 국회 마비 부담 '국정 물꼬트기'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 제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사학법 문제 이후 계속 표류되고 있는 정국 혼란에 대해 여야와 정부 등 책임있는 주체들이 논의에 풀어가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는 현재의 위기 국면을 탈출하겠다는 배경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이대로 가면 갈수록 레임덕이 심화되는 등 정국 장악이 더욱 힘들어지는 만큼 특단의 방법을 동원, 돌파구를 찾겠다는 청와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은 "역대 정권 말에 대선을 앞두고 국정이 표류한 예들이

레임덕 심화·타협정치 복원 고육책

많았으며 그런 현상 속에서 외환위기 등 국가적 중대위기 요인들이 발생했다"며 "정치협상회의가 하루 빨리 성사되어 여야 모두가 국정의 주체로서의 합의와 타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협상에서 한나라당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효숙 카드와 사립학교법을 꺼내들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이병완 실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효숙 현법재판소장 내정자 인준 건도 협상 안건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 모든 문제가 다뤄지고 풀리기를 바리는 뜻에서 이번 협상을 제안한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개정도 참여정부가 한나라당에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26일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여·야·정 정치협상회의'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세울 당근으로 관측되고 있으나 여당이 순순히 응용하는 미지수다.

그러나 이 같은 청와대의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 전효숙 카드·사학법 꺼내들 듯

전반적인 관측이다. 노 대통령의 정치적 노림수에 말려들 필요가 없으며 실익도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반응이다.

또한, 전효숙 현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반대, 전시작전통제권 논의 유보, 통일부 및 외교부 장관 임명 반대 등 한나라당의 요구 사안에 그 동안 노 대통령이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 오늘 중국으로

## 박근혜 전 대표

한나라당 대권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는 27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 공산당의 공식초청으로 성사된 이번 방중에서 박 전 대표는 첫 날인 27일 베이징(北京)의 중국 공산당 학교를 방문해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중국 신농총운동의 공통점 등에 대해 강연을 할 예정이다.

박 전 대표는 같은 날 중국 외교의 핵심인사인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과, 28일에는 다이빙 귀(戴秉國) 외교부 산무부부장 등 북핵 및 6자회담 관련 인사들을奕(奕)마다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어제 미국으로

## 정동영 전 의장

얼린우리당 대선주자 중 한명인 정 동영 전 의장이 6·8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26일 출국했다.

워싱턴 소재 존스홉킨스대학 국제 대학원(SAIS) 한미연구소(USKI) 초청으로 이뤄지는 이번 미국 방문에 서 정 전의장은 미국 조야의 유력인사들과 폭넓게 접촉, 북핵 협상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정 전의장은 27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나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그는 이어 28일 오전 워싱턴 D.C로 이동, 스티븐 클레먼스 뉴아메리카파운데이션(NAF) 대표와 면담한다. /연합뉴스

서 정 전의장은 미국 조야의 유력인사들과 폭넓게 접촉, 북핵 협상을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을 계획이다.

정 전의장은 27일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을 만나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그는 이어 28일 오전 워싱턴 D.C로 이동, 스티븐 클레먼스 뉴아메리카파운데이션(NAF) 대표와 면담한다. /연합뉴스

## “한나라 호남 방문은 마음 얻기 위한 것”

김형오 원내대표 광주 방문

## 전효숙·정연주 백지화 촉구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형오 원내대표는 26일

노무현 대통령의 '여·야·정 정치협상회의' 구성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나타냈다.

박재완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강제석 대표 등 최고위원들과 전화로 협의한 결과 27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친 뒤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